

기고

김 동 원 장흥경찰서 정보경비계 순경



건축화재, 사각지대 보아야 예방할 수 있다

최근까지 건물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건축·구조물 소방 시설 현대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전 1시 36분 장흥군 삼서면의 한 동·식물 체험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119가 출동하여 1시간 20분만에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화재로 인하여 새 2500여 마리와 파충류 30마리가 불에 타죽었고 체

험관 절반이 소실되는 등 약 2억 3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나타났다.
그리고 8월 26일 오전 5시 29분경 해남군에 위치한 한 주택 내 창고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으나 화재로 인하여 주택·창고가 전소되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 화재 발생건수는 42,338건이고 그중 건축·구조물관련

화재는 28,013건(전년도 대비 1%증가)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인 건수이다.
그렇다면 건축·구조물관련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 소방법에는 건물의 층수나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획일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기준보다 낮은 건물에 사는 화재 취약계층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층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대형 화재사고와 지진에 대비해 재해 취약계층 시설과 지진 고위험지역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을 현행 법보다 강화해 설치한다고 밝혔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전 시공사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건축비를 절약하자는 생각을 버리고 보다 더 내진설계 및 소방시설을 확대 설치하여야 하고, 정부·자치단체에서는 노후·낙후된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지속적 점검을 하고 건축 인허가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비소로 안전한 건물이 완공이 될 것이다.

社 說

출장여비 부당수령 근절돼야

최근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같은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니 걱정이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악습을 해결하고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기로 했더니 지켜볼 일이다.
우선 복무규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한다. 출장여비 부당수령이 적발된 공무원이 내는 가산금이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높아진다. 사소한 위반이라도 3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직원은 징계를 받는다.
현재 근무지 내 국내출장(관내출장·왕복거리 12km 미만 출장) 여비 기준은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이다. 앞으로는 2km 미만 출장은 실비만 지급해 근무지 인근 상점 등을 방문하고도 출장여비를

지급받는 관행을 뿌리 뽑는다. 4시간 미만 출장을 4시간 이상으로 부풀려 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관행도 해결한다. 출장 시작과 복귀 시간을 복무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해 관리자 결재를 얻어야 여비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출장에 대한 정도도 '정규 근무지 이외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명히 했다. 본인의 근무지를 대상으로 출장을 신청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여러 명이 함께 가는 출장도 각자 출장을 신청하도록 해 공무원 개인의 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비관 지급해 근무지 인근 상점 등을 방문하고도 출장여비를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외활동 많은 시기, 벌 쏘임 주의

최근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야산에서 벌초 중 말벌에 쏘여 일가족 3명이 쏘여 한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장마철이 끝나고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 계곡이나 바다 등 피서지에는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고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로 자주 보인다.
이처럼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벌에 쏘일 우려가 높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벌집관련 출동건수는 총 144,288건, 전남은 7,796건을 출동했다.
또한, 일반주택을 비롯해 축사, 창고, 아파트 베란다 등 벌집이 있는 곳도 다양하다.
특히, 추석 전까지 벌초에 나선 사람들이 많아져 벌에 쏘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벌 쏘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단 음식(특히 청량음료, 수박)을 두지 말아야 하고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 화장품, 요란한 색깔의 의복(특히 노란색)을 피해야 하며 벌이 가까이 접근하면 벌이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벌에 쏘였을 때는 카드 등 납작한 것으로 밀어 침을 제거하고, 얼음찜질로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힌다.
벌침 알레르기에 의한 호흡곤란 및 쇼크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한 후 환자를 편안히 눕히고 호흡이 원활하도록 기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땅벌은 흙이나 썩은 나무에 집을 짓고 서식하므로 실수로 땅벌 집을 밟로 찔때 공격을 받거나 일단 벌의 공격을 받게 되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바닥에 웅크리는 등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며, 집에 벌집이 생겼을 경우 무리하게 혼자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구조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자.
한선근 / 보성 119안전센터 소방위

학교폭력,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요즘 인터넷만화를 보고 있으면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조직화된 학교폭력을 버젓이 묘사한 만화들처럼 현실에서도 학교폭력은 이미 도를 넘은 것 같다.
지난 2018년에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약 2,10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했지만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이 고려해보면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상상이상일 것이다.
예전엔 단순한 장난이나 애들 싸움으로 치부됐던 것들이 현재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등 무서운 범죄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지 오래다.
이에 대응하고자 경찰청에서는 각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주기적인 예방교육과 위기 청소년들과의 면담을 실시해 청소년 범죄 근절 노력에 힘쓰고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 117의 운영과 학교폭력상담전화 1388 등 다양한 청소년 유관기관들과 연

계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피해 학생들이 각종 구제제도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으며,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어른들이 많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먼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반성이 필요해 보이며, 학교폭력을 단순한 장난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학교폭력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경찰도 이 같은 일로 생기는 집단 따돌림 등 관련 범죄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현서 /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경찰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량 일요콜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신고 123
▲가스사고신고 383-0019

호남신문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경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